

셔틀콕 세계 톱스타들 다 모인다

최고상금 120만달러 빅터코리아 오픈 25일 개막

전세계 배드민턴 스타들이 한국에 모여 역대 최고 상금인 120만달러(약 13억4000만원)를 놓고 치열한 '셔틀콕 대전'을 펼친다. 무대는 2011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프리미어대회(25~30일·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8일 "올해 첫 프리미어급 대회로 치러지는 코리아오픈이 25일부터 6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다. 25개국에서 3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은 12개의 슈퍼시리즈 가운데 코리아오픈을 비롯해 중국오픈, 전영오픈, 텐마크오픈, 인도네시아오픈 등 5개 슈퍼시리즈를 최상위 단계인 프리미어 대회로 승격했다.

한국은 1991년 처음 시작한 코리아오픈을 프리미어 대회로 유통하면서 총 12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었다. 남녀 단식 우승자는 9만달러(약 1억 원), 남녀 복식 및 혼합복식 우승팀은 9만4800달러(약 1억5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역대 대회 가운데 총상금이 100만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스타 중에서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단식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휩쓸며 대회 MVP로 뽑힌 린단(중국)이 눈에 띈다.

린단의 최고 라이벌로 손꼽히는 남자 단식 세계랭킹 1위 리옹웨이(말레이시아)가 출전해 '나시 보는 아시안 게임 결승전'을 연출할 태세다.

또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금, 은메달을 휩쓸은 왕스엔과 왕신(이상 중국)이 모두 출전하고, 지난달 열렸던 BWF 슈퍼시리즈 마스터스 파이널 남자복식 결승에서 이용대-정재성을 물리친 세계랭킹 1위의 카르스텐 모겐센-마티아스 보에(덴마크)도 한국을 찾는다.

한편 이번 대회는 SBS ESPN을 통해 주요 경기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나달 가쁜하게

호주오픈 64강 안착

남자 프로 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이를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 테尼斯대회 남자단식 1회전을 기권승으로 힘들지 않고 통과했다.

나달은 18일 호주 멜버른파크 로드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남자단식 1회전에서 마르코스 다니엘(브라질)에 기권승을 거뒀다. 1세트를 6-0으로 이긴 나달은 2세트에서도 5-0으로 앞서던 중 무를 통증으로 끝내를 감고 경기 하면서 손쉽게 2회전(64강)에 안착했다.

나달은 1회전을 47분 만에 통과하면서 개인 통산 일 번째 메이저 우승과 1969년 로드 레이버 이후 42년 만에 첫 4차례 연속 메이저 대회 정상 도전을 향한 발걸음을 가볍게 내디뎠다.

여자부에서는 세계랭킹 2위 베라즈보나레바(러시아)가 1회전 상대 지빌레 바미(오스트리아)를 2-0로 제압하고 2회전에 진출했다. 지난해 월드컵과 US오픈 결승에 오르고도 매번 준우승에 머물렀던 즈보나레바는 베테랑 바미를 초반부터 강한 공세로 물어붙여 59분만에 승부를 마무리했다.

사마사 스로서(호주)는 로렌 데이비스(미국)를 2-0으로 돌려세웠고 엘레나 안코비치(세르비아)는 알라 쿠드리야프체바(러시아)를 2-0으로 제압하며 각각 2회전에 올랐다. /연합뉴스

장미란, 10년 연속 올해의 선수

남자부선 전상균 선정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28·고양시청)이 10년 연속으로 '올해의 선수' 자리를 지켰다.

대한역도연맹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11년 1차 전체 이사회를 열어 장미란을 여자부 최우수 선수로 확정했다.

장미란은 이로써 주니어 선수

시절이던 2001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한국 역도 간판의 지위를 유지했다.

장미란은 작년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해 주요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을 이뤘다.

남자 최우수 선수에는 최종량급 (+105kg)의 강자 전상균(30·한국조폐공사)이 선정됐다. 전상균은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은 등 활약했다.

남녀 우수선수상은 아시안게임 남자 94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민재(27·경북개발공사)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인상 동메달,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딴 63kg급 김



수경(25·제주도청)에게 돌아갔다. 정현술(남성고)과 안소영(원주여고)은 각각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활약을 인정받아 남녀부 신인상을 받는다. /연합뉴스

최철한, 농심배 2연승 휘파람

한국 통산 10번째 우승 눈앞

'독사' 최철한이 농심배에서 2연승을 올리며 한국의 통산 10번째 우승에 청신호를 밝혔다.

최철한 9단은 18일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제12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최종

대를 몰아붙이며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나가던 최철한은 좌상귀 전투에서 큰 집을 벌어들여 우위에 섰다. 이후 끊임없이 국면을 흔들어 대며 단 한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완벽한 끝내기로 원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2라운드 마지막 대국에서 2연승 중이던 일본의 다카오 신지 9단을 이겼던 최철한은 이로써 대회 2연승을 올렸다.

초반부터 실리를 내주면서도 상



국립체육대학교 [수원원] 대회에서 2연승을 거둔 최철한은 2연승에 본선에서만 8승(4패)째를 올렸다. /연합뉴스



유동근이 18일 스웨덴에서 열린 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D조 3차전 경기에서 오스카 카를렌을 데리고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핸드볼, 강호 스웨덴에 무릎

세계선수권 조 3위 올라

한국 남자핸드볼 대표팀이 제22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훌륭한 스웨덴에 패했다.

한국은 18일(이하 한국시간) 스웨덴 예테보리 스칸디나비움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5일째 조별리그 D조 3

차전 스웨덴과 경기에서 24-30으로 졌다. 1승1무1패가 된 한국은 스웨덴, 폴란드(이상 3승)에 이어 아르헨티나와 함께 조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아시아 블링선수권

조영선 개인전 우승

조영선(25·양산시청)이 제21회 아시아블링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조영선은 18일(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남자 개인전에서 6개임 합계 1433점(에버리지 238.83)으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5

인조금메달 주연인 조영선은 두번째 개인에서 268점을 기록하는 등 기복 없이 높은 점수를 이어가며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www.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관련사항 문의 010-7570-7525

주택사업 / 투자사업 김진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114 경기 / 토지 정아미 이사 010-5879-0005

상무부동산 김경호 이사 010-8033-0